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과제

- 일본 NGO의 입장에서 -

제 5회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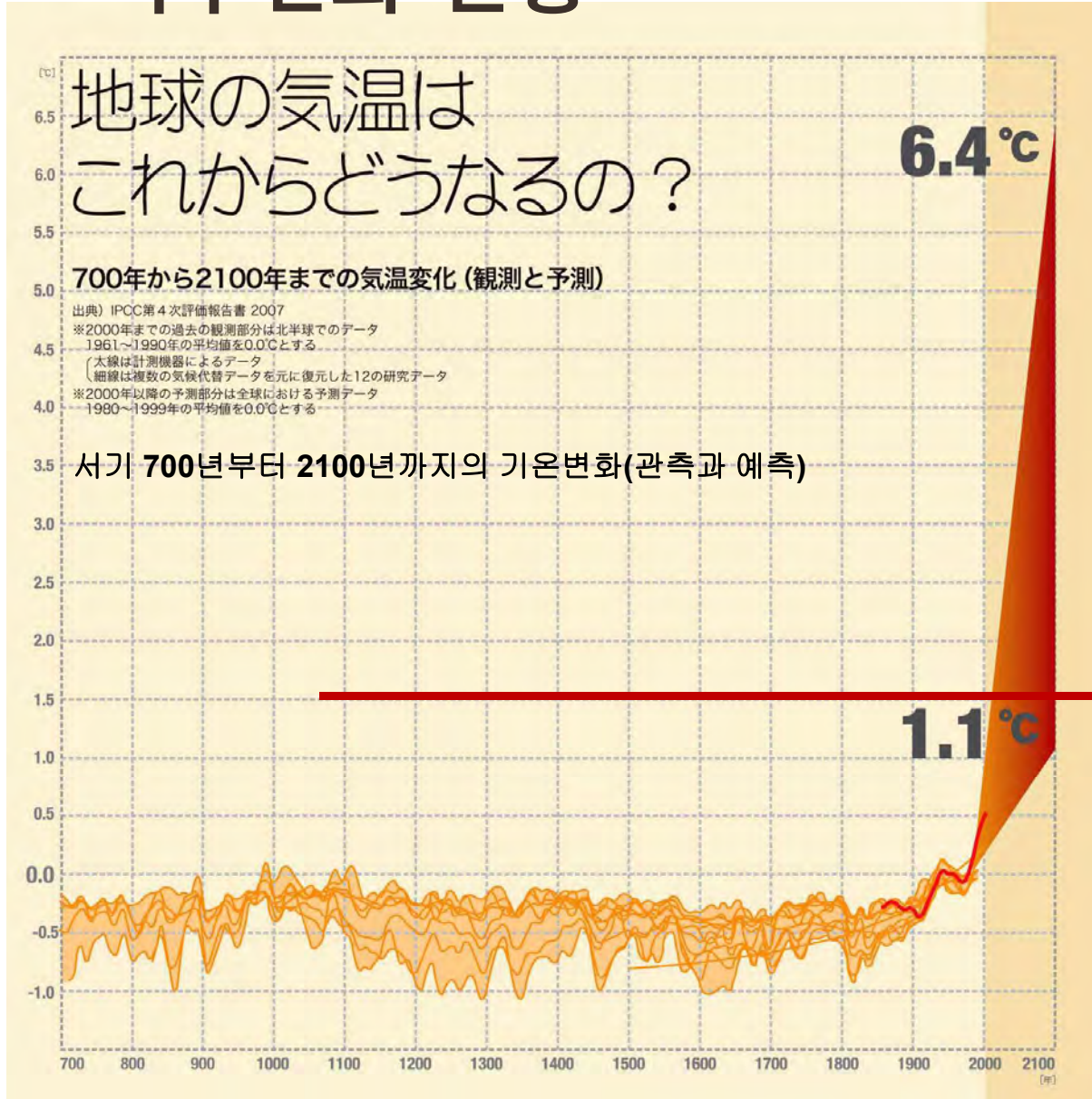
2010년 11월18일

일본기후네트워크 모모이 타카코 (桃井貴子)

기후네트워크는

- 지구 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 개인의 네트워크
- COP3 회의('97년, 교토)를 계기로 조직
- 주된 활동
 - 국제협약(UNFCCC) 교섭 과정의 모니터링
 - 일본 국내 삭감정책의 제안
 - 지역·지자체 정책 및 실행 지원
- NGO시점에서 정책의 분석·제안 (홈페이지에 게재)
- 지역의 NGO·소비자·시민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지자체 정책과 지역활동을 코디네이트

기후변화 현황



지구는 온난화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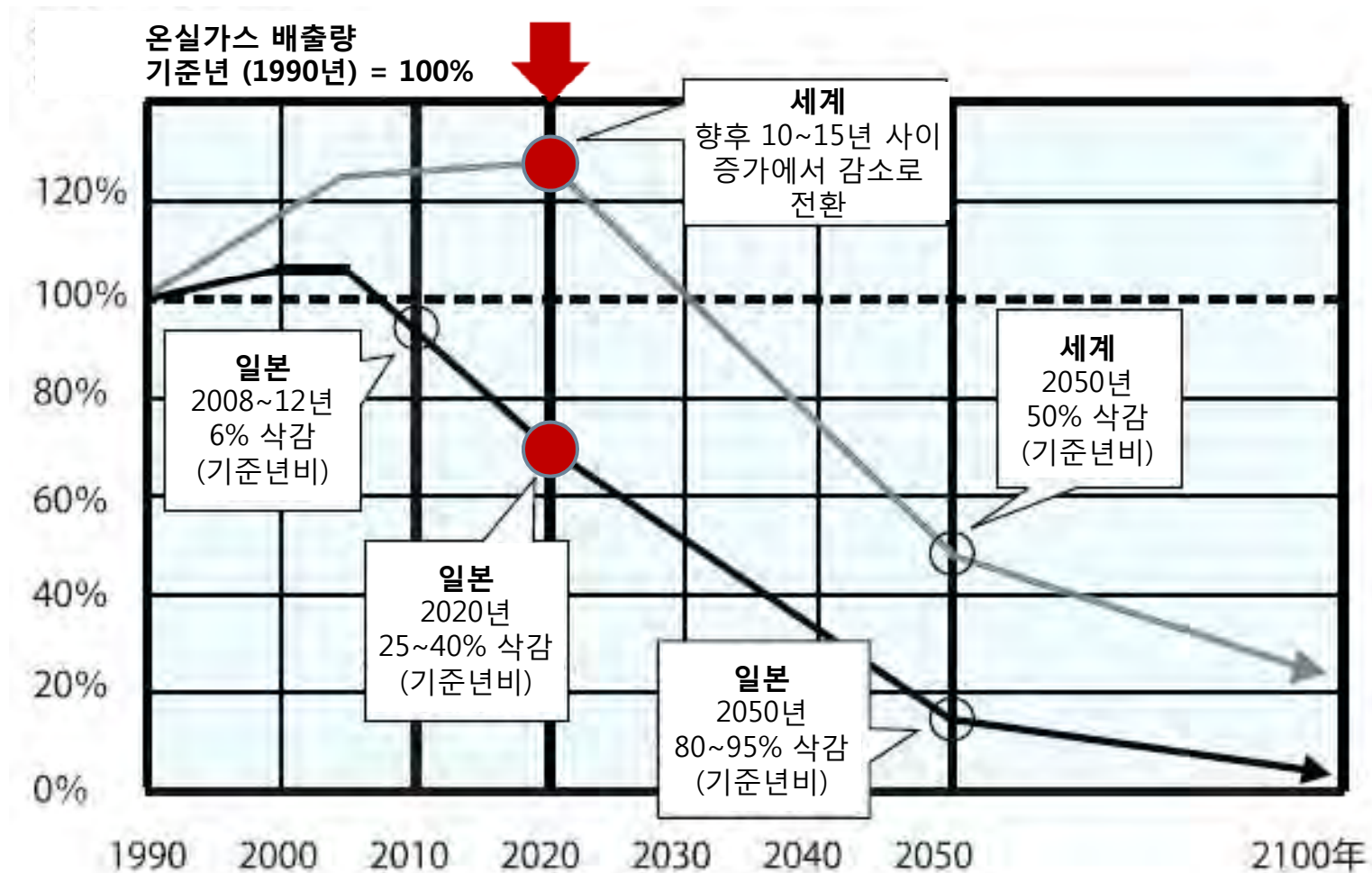
지금의 상태로
진행되면
최대 6.4도까지
기온 상승

2°C미만으로
기온 상승의 억제 필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2°C의 기온상승 라인

2°C 미만 억제를 위한 삭감 경로

- 이후 온실가스 대폭 삭감이 필요
- UN은 2020년 전후의 세계 협약을 교섭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본의 정책과 과제

기온 2°C상승하면, 최대 30% 생물종 멸종의 위험 증가!
 기온상승을 멈추고, 지구환경을 지키고, 저탄소형의 새로운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C미만으로 억제하고
세계의 온실가스배출을 절반 이하, 선진국은 2020년에 40%, 2050년에 80%이상 삭감

【국제 과제】 세계의 룰 만들기 (2013년 이후)

- 공정하고, 야심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한 차기 협약의 완성
- 일본 -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 마련

【NGO 제안】
일본이 솔선해서 국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견인

시민 참가가
사회 변혁에
필수!

【국내 과제 - 국가 차원】 국내 제도 만들기 (2013년 이후)

- 국내의 중장기적(구속력 있는) 삭감 목표를 설정, 삭감 수단 도입하여 저탄소형으로 일본경제를 재생
- 구체적인 정책과제
Cap&Trade형 배출량거래제도
탄소세 (carbon tax)
재생에너지 전량매수제도

【NGO제안】
기본법의 성립과 개별 정책의 실현

【국내과제 - 시민, 지역】 세계의 룰 만들기 (2013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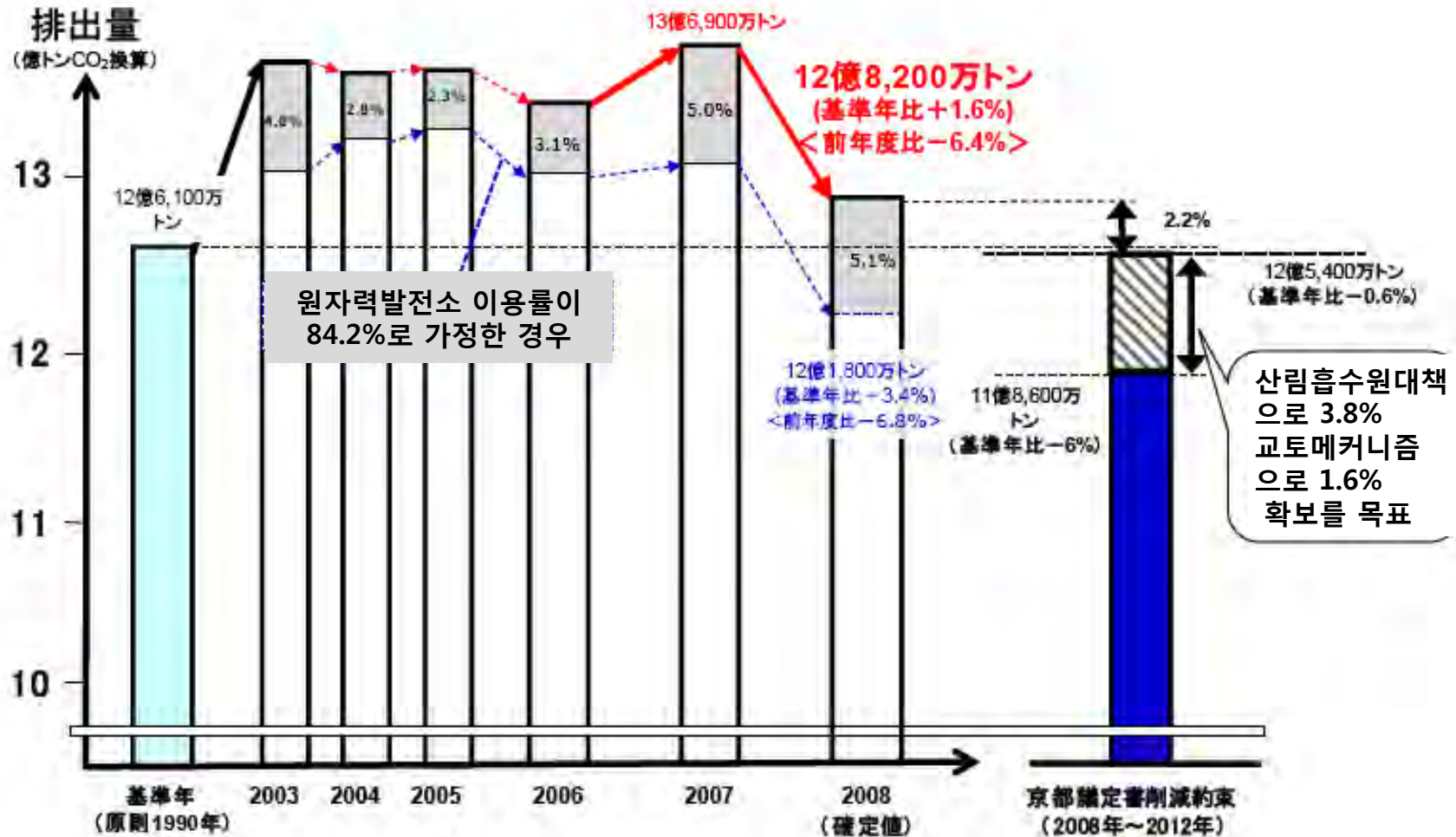
- 지역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 구체적 정책과제
에너지 데이터의 파악
지역판 배출량거래제도
세금과 C&T에 의한 자원 이양

【NGO제안】
정확한 에너지 관련 데이터 파악
지역특성을 살린 제도

【공통항목】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부대표단 포함, 법률 및 정책 형성에 참가 규정, 정부의 응답 의무 등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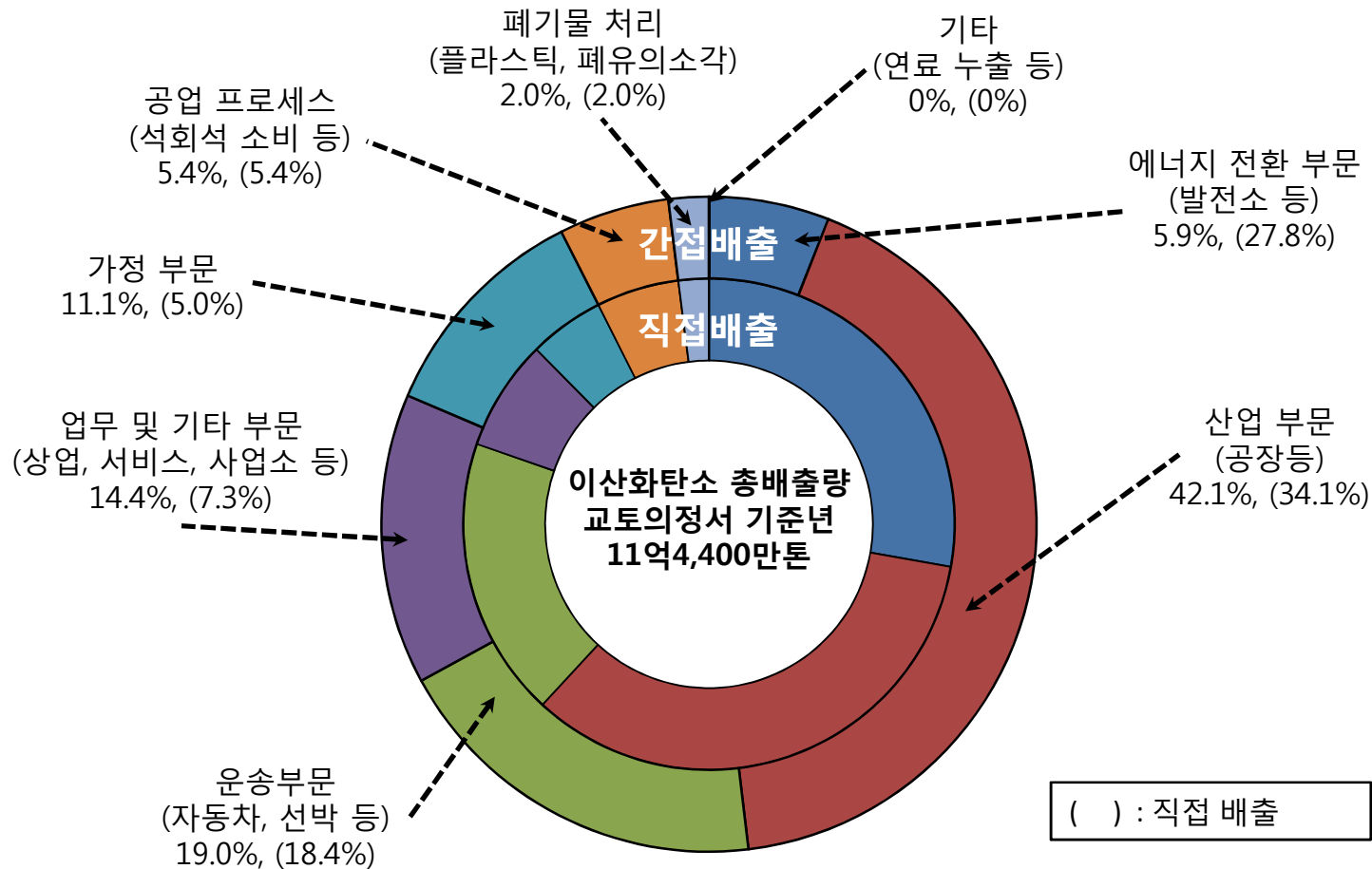
- 2007년 - 기록적인 배출량 증가
- 2008년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악화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
- 교토의정서 목표(90년 대비 -6%) 달성이 가능?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_ 부분별

• 각 부분별 CO2 배출량 내역

- ▣ 간접 배출 : 전력 사용에 의한 배출을 수요에 배분
- ▣ 직접 배출 : 전력 사용에 의한 배출을 발전에 배분



일본의 기후정책

- **목표**

- 202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 해외 옵셀을 포함할 경우, 국내 감축은 15% 정도?
- 2050년까지 80% 감축

- **입법**

-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기후기본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재상정

- **현재의 정책**

- 원자력 발전 추진
-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

기후기본법안의 내용

• 주요 정책

- 캡&트레이드형의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 탄소세 (지구온난화 대책세)
-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 (Feed-In-Tariff System)

• 최근의 논의

- 패키지형 인프라의 수출 촉진
 - 대상 분야 : 원자력, 고효율석탄화력발전소, 고속철도 등
 - 일본 정부가确定的한 "신성장전략(기본방침)"에서 전 세계에서 13억톤의 온실가스 삭감을 목표로 함
 - 주로 중국, 인도 등 국가에서 삭감을 기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 - 4개의 과제

- 25% 삭감의 중기목표에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져 있는 점
- 국내 배출량거래제도에서 총량 삭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원단위 목표도 검토하기로 한 점
-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목표를 완화하려고 하는 점
- 원자력발전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점

Cap & Trade형 배출량거래제도

- 제도

-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소에 배출상한선(Cap)을 설정하고,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Trade)를 인정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

- 현황

- 기후기본법안에 일년 이내 제도 도입을 규정
-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각각의 제도를 검토중

Cap & Trade형 배출량거래제도 (2)

- 환경성 제도 옵션

- A. Absolute Cap (Auction) + Direct emissions (Include power sector) ; 전력직접 + 총량방식(유상할당)
- B. Absolute Cap (Free allocation) + Indirect emissions (exclude power sector) + Electricity Intensity regulation ; 전력간접 + 총량방식(무상할당) + 전력원단위규제
- C. Intensity target (Free allocation) + Indirect emissions (exclude power sector) ; 전력간접 + 원단위방식

- 경제산업성 제도

- 제도 도입 자체의 유효성에 의문
 - 일본의 에너지 한계체감비용이 대단히 높음. 제조업체 규제는 비효율적
 - 일본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로 인한 공헌을 배출량에 고려
 - 친환경상품 생산의 배출은 허용, 규제 제외 필요

탄소세 (지구온난화대책세)

- 제도

- 탄소집약도에 따라 화석연료에 과세
- 세금 수입은, 다른 세금의 감세로 세수중립으로 하는 방법과
、온난화 대책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

- 상황

- 연내에 제도 합의예정

- 제도 제안

- Introduce low tax rate and use tax revenue for energy related CO2 countermeasures 낮은 세율 적용 및 세금 수입을 온실가스 대책과 관련된 에너지분야에 사용
- 중화학공업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면제 고려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

- 제도

-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고가로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

- Status 상황

- 경제산업성이 제도 제안
-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구매, 단, 개인용의 태양광패널 발전 전력은 잉여 전력만 구매
- 태양광 이외의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전력은 고정 가격 적용

MAKE the RULE 캠페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0여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함

- ▶ 국가에 서명 청원, 373,722명분
- ▶ 지방의회에서 의견서 채택, 123곳
- ▶ 국회의원 대상 세미나, 총 14회
- ▶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서 세미나 개최
- ▶ 전국 144명의 전문가 지지의사 표현
- ▶ 전국 집회 약 50 곳



국회의원·정당에 정책 제안

新しいルールで、
地球をクールに。

**MAKE
the
RULE**

エコがブームになってずいぶんたちますが、
CO₂はあかわらず増えつづけ、地球温暖化の
影響は大きくなってきています。ところが日本には、
CO₂を減らすためのルールがありません。
ひとりひとりの心がけにも限界があります。
いま求められているのは、社会のしくみを変えて
いくこと。そのためには、CO₂を確実に
減らしていくための新しいルールが必要です。
この星で、すべてのひとが幸せに生きつづけるために。
あなたの声とアクションが、明日を変える力になります。

www.maketherule.jp

MAKE the RULE의 룰이란?

1. 중장기적인 삭감목표를 정하는 것

- 2020년까지 30% 삭감(1990년 대비)
- 2050년까지 80% 삭감(1990년 대비)
- 2020년까지 1차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2. 온실가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 CO2 삭감에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과 격려를 받고,
- CO2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부담을 요구받는 공정한 경제사회를 만드는 것.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전량 고정가격매수제도

그리고 이 룰을 「기후보호법」으로 정하는 것

2008년 8월 캠페인 시작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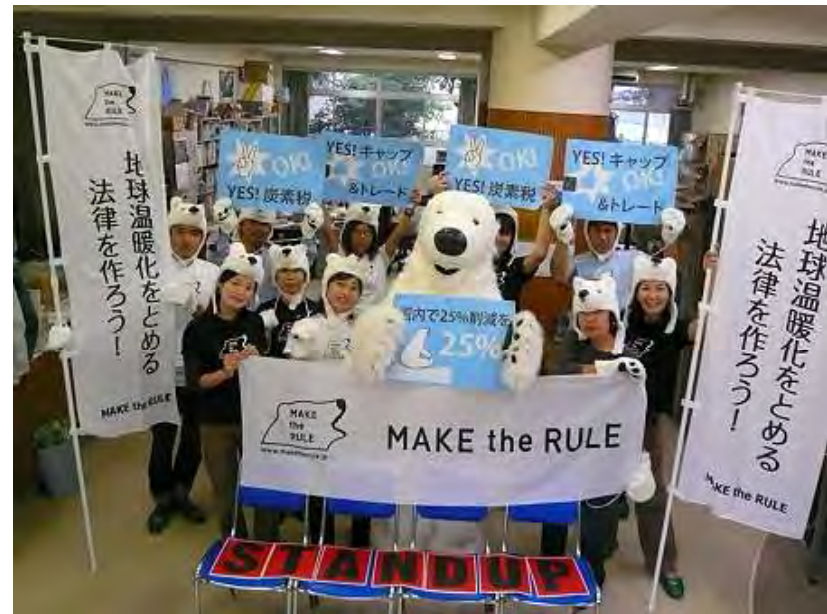


캠페인 상품



캠페인 로고마크 등을 도입,
젊은층을 대상으로 T셔츠, बै지, 텀블러 등을 제작,
판매하는 등 세련된 활동 전개

유명인 참여, 다른 네트워크와 연계



일본의 여배우와 탤런트 등 유명인사의 협력으로 이벤트 등 개최.
올해 8월 1일, 국회에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법안 폐기에 대하여,
국회의 법안 성립의 기대를 담은 토크쇼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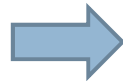
국회의원 후보자 앙케이트 실시

2009년 중의원 의원, 2010년 참의원 의원 후보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실시.
 앙케이트 결과를 선거구별로 종합, 유권자가 각 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



選挙区

地図及び地区名をクリックするとその地区の候補者をご覧いただけます。



選挙区

選挙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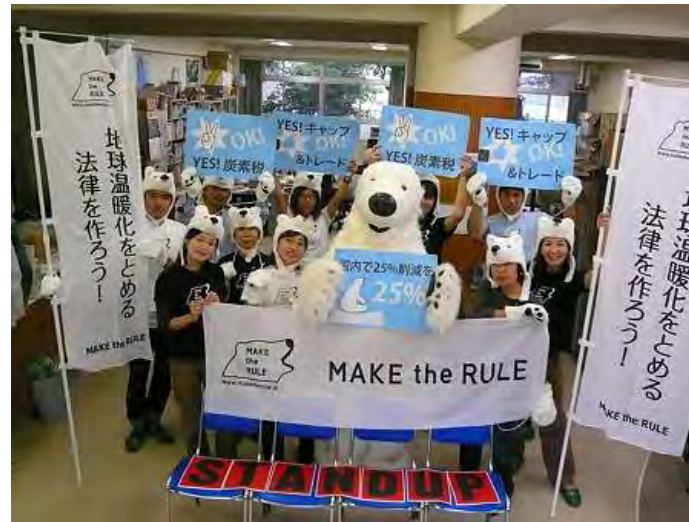
選挙区

北海道

氏名	政党名	国際的な合意がなくても25%削減は国内で達成すべきか?	キャップ&トレード排出量取引は、総量削減とすべきと思うか?	地球温暖化対策税はそう急に導入するべきだと思うか?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は最大限全量買取とすべきか?	原子力発電は温暖化対策として必要だと思うか?
山田 太郎	民主党	判断できない	妥当だ	高すぎる	妥当だ	高すぎる
山田 花子	自民党	判断できない	低すぎる	高すぎる	低すぎる	高すぎる

:

글로벌 액션과 국제 NGO의 연대



COP 회의 기간 중에 글로벌 액션 데이를 진행,
도쿄시내의 변화가 (시부야, 긴자)에서 퍼레이드와 가두 서명 실시

전국 각지에서 지역 세미나 개최



NGO연대를 통한 과제 해결

- **시민사회, NGO의 협력**

- 장기적 방향성의 공유
 - 2°C 미만 삭감, 장기 목표 설정 등
- 정책 협조의 가능성
- 우수 사례의 정보 공유